

# 건축사여... 가식의 빈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자!!!

Architects, Fearlessly Step Forward without Pretense!!

focus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sense of meaningfulness)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느낌(sense of choice)과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느낌(sense of competence), 실제로 진보하고 있다는 느낌(sense of progress)을 갖게 될 때 일 속에서 재미와 열정을 느낀다.'*  
- Kenneth W. Thomas(2000), *Intrinsic Motivation at work*

요즘 들어 우리 건축사들에선 '건축' 과 관련된 민감한 현안들이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어 회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건축기본법' 제정, '건축사법' 개정, '한미 FTA 협정', 건설사 설계검열 문제, 건축사 등록원 설립문제 등등... 이러한 여러 현안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필자에게 할애된 지면의 한계로 다음으로 미루고 그 현안들의 중심에 서있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회원들에 대해 필자는 영화 '라디오 스타' 라는 대중적인 소재를 통하여 이야기해보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한다.

과거 통기타와 Rock을 좋아했던 세대라면 한번쯤 보았을 영화이고 영화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웃고 울었던 영화일 것이다. 이 영화의 감독은 '왕의 남자' 로 더 유명해진 이준익 감독이 맡았으며 주연은 88년 가수왕 '최 곶' 역에 박중훈, 그의 열렬한 팬이자 매니저인 '박민수' 역은 안성기가 맡아 열연한 영화이다. 할애된 지면 관계상 영화줄거리는 생략하겠다.

필자가 갑자기 이 영화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은 영화의 내용이 지금 우리 건축사들과 대한건축사협회가 처한 현실적 상황과 매우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함께 생각해보기 위함이다.

이 영화를 통하여 먼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88년 가수 왕을 차지하여 최정상에 오른 가수 '최 곶' 이라는 인물의 현실에 대한 상황인식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는 성공적인 가수의 삶을 영위하면서도 현실적인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이상적인 스타의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다 결국 스스로 방황하고 몰락하는 가수가 된다. 더욱이, 자기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팬들로부터 외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자기반성보다는 항상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믿어주고 보살펴준 매니저만 원망하며 자기계발을 통한 자기변신에 노력하지 않는다.

결국, 철저한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그들의 행동은 점차 대중으로부터 외면 받게 되고 그들에게 고단한 현실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들이 그 전에 성공된 삶을 살은 데에는 분명 그들이 하고자 했던 목표에 대한 확고한 열정과 철학이 있었을 것이며 그것들이 팬들에게 공감을 얻으면서 인기스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고마움을 잊은 채, 보다나은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고 편안했던 현실에만 안주하다 결국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아가는 처지가 된다. 영화에서 어느 날, 정신없이 이상을 쫓아다니느라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박민수'는 잠시 현실로 돌아와 집을 찾아간다. 어렵게 운영하던 부인의 김밥집이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았고 누추한 집에서는 지하철에서 김밥을 팔기위해 김밥을 싸고 있는 부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박민수'는 고단한 현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러한 고단한 삶 속에서도 다시 '라디오 스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계기는 무엇이이었을까.

필자는 누구나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아름답고 순수했던 '자기가 원했던 일에 대한 첫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순간, 비로소 어렵고 고단한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가능하리라 믿는다. 그러한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중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대중과 함께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이 결국 그들을 '라디오 스타'로 만든 것이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장면에서 우여곡절 끝에 매니저 '박민수'가 우산도 펴지 않고 비를 맞으며 '최 곤'을 찾아간 것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변화된 새로운 현실을 과감히 받아드리고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는 의지의 표현이며, 가수 '최 곤'도 진정한 자기성찰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도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비를 함께 맞으며 동참의 의지를 표현한다. 비를 맞고 서있는 가수 '최 곤'을 매니저 '박민수'는 들고 있던 우산을 펴서 씌워 주면서 다시 진정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가수 '최 곤'의 매니저로서의 끝없는 신뢰를 보여준다.

지금, 우리 건축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 우리 회원과 협회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제 우리 모두 과감히 가식의 빈껍데기는 벗어 던지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자 !!!

미래학자 앨빈토플러는 '오늘날 기업과 정부, 개인은 전보다 더 쓸모없어진 무용지식(Obsoledge : Obsolete+Knowledge), 즉 변화로 인해 이미 거짓이 되어버린 생각이나 가정을 근거로 매일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이제 과거의 어둠 속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지루한 논쟁을 접어두고 자신 있게 앞으로 나와 생산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자. 그것만이 우리가 이 고단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혜안(慧眼)이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회원사인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 있는 건축사가 쓴 일간지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다. '건축가의 위상과 건설사의 설계겸업문제, 전문인력 FTA문제' 등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짧은 칼럼이지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쓴 글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결국 우리 회원 모두가 각자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를지라도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의 저면에는 서로가 부인할 수 없는 건축사라는 동일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회원 스스로가 서로의 상황과 현실을 인정해주고 서로를 적극적으로 배려해 줄때, 우리가 처한 현실은 분명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회원으로서 맹목적인 비판을 위한 명분을 찾기 보다는 협회가 추진하는 많은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참여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자. 그리하여 회원 모두가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의연하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서 행동하는 건축사의 모습을 보여주자. 협회도 수동적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협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노력의 성과들을 과감히 홍보함으로써 회원들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한다. 지난 시절, 회원들의 비협조적인 자세를 먼저 탓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협회운영을 통하여 많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하여야한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한 삼성그룹은 한사람의 우수인재를 데려오기 위해 이견희 회장의 개인 전용기도 내 줄만큼 우수인재 유치에 사활(死活)을 걸고 있다. 그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협회도 진심으로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한다면 삼근초려(三顧草廬)하는 자세로 돌아가 회원들에게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인 참여를 권유하고 아울러 그와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하늘에 혼자 스스로 빛나는 별은 없으며 누군가가 별에 빛을 비추어 줄때 비로소 그 별이 빛이 난다”는 영화 속의 대사처럼 우리 회원들과 협회도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며 서로가 빛날 수 있는 즐거운 현실을 기대해 본다. ■